

## 덴기열 알아보기

### 1. 원인 병원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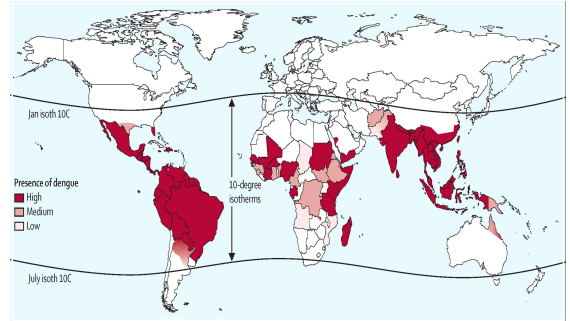
- 덴기 바이러스(Dengue virus)

### 2. 유행시기

- 하계휴가 기간이 시작되는 7월 이후부터 발생 증가

### 3. 감염경로

-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에 물려 감염
  - \* 매개모기는 이집트숲모기와 흰줄숲모기
  - 국내에도 흰줄숲모기가 서식하고 있으나 덴기 바이러스는 미검출되었으며 이집트숲모기의 국내서식은 확인되지 않음
  - \* 주로 우기에 모기 개체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덴기열 환자수도 우기에 급격히 증가
- 수직감염, 주산기 감염
- 혈액을 통한 전파
  - \* 수혈감염, 골수 및 신장이식 등 장기이식에 의한 감염, 감염된 사람의 혈액 채취 시 바늘에 찔려 감염된 사례가 보고됨



<덴기열 발생지도(WHO 2015)>

### 4. 임상양상

- 잠복기 : 평균 5-7일(3-14일)
- 임상증상
  - 질병의 경과가 다양하며, 감염되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불현성 감염자가 70-80%
  - 일반적으로 발열기, 급성기, 회복기로 진행
    - 발열기 : 일반적으로 2-7일정도 지속
      - 두통, 근육통, 관절통, 황반 및 반구진 발진, 출혈성 반점, 자반병, 구강출혈 등
    - 급성기 : 해열 이후부터 1-2일정도 지속되며 4일까지 진행
      - 대부분의 환자는 이시기에 회복되지만 심각한 혈장 유출이 있는 환자의 경우 중증 덴기열\*로 진전
      - \* 중증덴기열(덴기출혈열, 덴기쇼크증후군 등)
        - 경고 징후 : 심한 복통, 지속되는 구토, 빠른 호흡, 잇몸 출혈, 피로, 안절부절 못함, 피가 섞인 구토 등
        - 이전에 덴기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자가 다른 혈청형에 재감염 되면 중증 덴기열로 진행하기 쉬움
        - 혈장유출, 체액저류, 호흡곤란, 심한출혈, 장기부전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함
    - 회복기 : 발진은 피부가 벗겨지거나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음

### 5. 진단

- 검체(혈액)에서 바이러스 항원 또는 유전자 검출(분리), 검체에서 바이러스 특이 IgM 항체 검출
- 급성기 혈액에서 바이러스 분리
-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

### 6. 치료

- 치료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증상에 따른 대증적 요법 수행, 출혈성 경향이 있으므로 수액 보충 필요
- 아스피린 사용 시 라이 증후군 발생 사례가 있어 아스피린 사용 금지
-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(NSAID) 등 출혈 위험을 증가시키는 약제 금지

### 7. 예방법

- 예방백신 없음
-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
  - 모기 퇴치 제품(모기장, 모기 기피제 등) 사용, 외출 시 가능한 밝은 색의 긴팔 및 긴바지를 착용
  - 집 주변 고인물 제거, 구멍난 방충망 확인 및 모기장 사용
  - 의심증상(발열, 두통, 오한 등) 발생 시, 즉시 의료기관 방문
  - 발생지역 여행 후, 최소 1개월 간 헌혈을 하지 않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

<출처 1. 2016년도 바이러스성 모기매개 감염병 관리지침, 보건복지부/질병관리본부  
2. 2016 법정감염병 진단·신고 기준, 보건복지부/질병관리본부  
3. '덴기열 해외유입 증가 예상, 해외여행 시 모기 주의 당부', 질병관리본부 7월 28일 보도자료>